



대추나무 재배(2)

5. 식재

품종에 따른 적지와 번식법에 대하여는 전호에서 개략적으로 기술하였다.

대추나무는 다른 유실수에 비하여 어디서나 잘 자라고 묘목의 활착이 특히 잘 된다고 믿고 있지만 정식할 때에는 우선 토양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배수가 잘 되는 땅을 택하여야 하는데 즉 토양층이 깊은 사양토로서 배수상태가 좋은 장소를 선정토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식재시는 땅을 깊이 파서 토양구조를 개선시킨 후 퇴비와 같은 유기질 비료를 넣고 섞은 다음 식재토록 한다.

식재시기는 추식보다 춘식이 유리한 것은 다른 유실수와 다를바 없으나 대추나무는 이식에서 오는 성장과의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넓은 면적에 정식을 하므로써 관리하는데 비용과 불편이 수반됨을 고려하여 미리 일정한 장소에 가식을 하였다 정식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즉 3~4년간 비옥한 땅에 가식한 후 이식을 해도 좋다.

집단지배에 있어서 식재거리는 대추나무가 원래 반 교목성(半喬木性)이므로 식재거리를 넓게 잡을 필요는 없으나 적지일 때 집약전재를 전제로 할 때는 2~3m,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5m거리 간격으로 심는 것이 알맞다.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묘목을 포지에 3~4

년간 가식할 때에도 묘목의 성장속도를 봐서 실시하여야 하는데 특히 성장이 느린 과종묘에 적합한 일이고 분얼묘 또는 접목묘에 대하여는 직접 정식토록 하여 수확을 빨리 보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6. 식재 후 관리

대추나무의 식재후 관리는 일반 과수와 비슷한데 몇 가지 강조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기술하던 다음과 같다.

(1) 비배관리

열매를 여는 과일나무는 열매가 맺기까지의 성장기와 결실기에 따라 시비면에 차이가 있다.

대추나무의 뿌리는 옆으로 길게 뻗어나가는 성질이 강하므로 토심이 깊고 배수가 잘 되는 사양토일 때에는 충분한 뿌리의 발달이 가능할 것이므로 되도록 퇴비와 같은 유기질이 풍부한 지효성비료와 일부 속효성인 유안, 요소 등과 같은 질소질 비료로 결실전까지 연차적으로 초봄에 시비토록 한다.

처음 결실을 하기 시작하는 2~3년식기인 식재후 실생묘이면 6~7년 분얼묘이면 시기인경부터 질소질계통의 비료외에 계분 나무재 등의 자급비료와 일부 인산, 가리계통의 비료와 같이 주면 좋다.

특히 인산질 계통의 비료를 충분히 주어야만 열매의 품질 즉 크기와 광택있는 좋은 열

매를 수확할 수 있다.

흔히 대추나무에 시비를 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격년 결실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2) 결실 촉진법

대추나무에 꽃이 필 때에는 가는 장대로 꽃핀 가지를 약간 쳐 주면 수정을 도와주는 효과가 된다.

특히 개화기에 비가 오거나 짙은 안개 등으로 공중습도가 높아지면 수정이 잘 되지 않으므로 장대로 어린 가지들을 약간씩 두들겨 주면 결실을 돕는다.

또한 대추의 품질은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열매가 작고 맛이 좋지 않은 대추나무에는 대추나무의 밑둥을 도끼나 폐통으로 두드려 울리던 열매가 많아지고 품질도 좋아진다고 하여 옛날부터 일부지방에서는 5월 단오 날이나 정월 초하루날에 실시하고 있다 한다.

이는 대추의 결실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줄기의 주위에 상처를 주면 열매의 품질이 좋아진다는 것인데 중국에서는 줄기나 가지에 상처를 일부러 주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형성된 동화물질이 수체의 상처로 인하여 아래로 이동하는 통로가 끊기고 동화물질인 탄수화물로 인해서 세포액이 짙어지며 C/N율이 높아지므로 화아분화(花芽分化)를 돕고 과실의 발육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열매에 당분의 함량을 높이는 결과가 된다고도 볼 수 있으나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방법이긴 하지만 구태여 여기에 과학적인 이론을 전개할 필요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7. 가지치기(剪枝法)

대추나무는 부정아의 발생이 심하여 정지(整枝)하기가 곤란하다.

결과습성은 외관상 반듯이 당년에 신장되는 신초의 엽액(葉腋)에서 개화결실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신초가 발육되는 장소가 다른 과수의 결과모지(結果母枝)와 같이 반듯이 전년생 발육지만이 아니고 그 전체가 일종의 복엽(復

葉)과 같은 것으로 한번 결실되면 가을에 과실의 성숙과 함께 그 전체가 말라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는 가지치기를 하면 탄소동화작용을 하는 잎의 양이 적어짐으로 탄수화물의 생성량도 적어지게 됨으로 결실상태가 불량하여 지므로 가지치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전지 또는 정지는 결실하는 가지의 배열을 주로 하거나 장차 주지의 발달을 고려하여 실시하게 되므로 나무마다의 자연수형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따라 실시토록 한다.

전지법은 유목시대(幼木時代)에 주간을 짧게 잘라서 제한하면서 가지를 옆으로 퍼지게 하고 도장지발육을 억제키 위하여 속아내던지 또는 이를 유인하여 결실에 유인토록 한다.

대추나무는 결실할 수 있는 새가지가 도처에서 발생함으로 내부의 죽은 가지 쇠약한 가지 또는 지나치게 밀로 늘어드는 가지 등을 적당히 속아냄으로써 수관내부의 바람과 일광의 투입이 좋게 하면 된다.

대추나무는 반교목성인 과수로서 직립성(直立性)이 강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줄기를 짧게 잘라 높이를 제한함에 따라 많은 가지가 옆으로 퍼지면서 수관의 내부에서는 가지와 가지가 서로 얼키어 일년생가지에서의 개화결실에 불량하여지고 과실의 품질도 충분한 공간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과피의 색깔이 좋지 않고 저하된다.

따라서 대추나무에는 많은 잔 가지가 발생하여 손질하기 어려우나 내부의 충분한 공간을 유지하고 외부로 가지가 확장하여 나가도록 측지를 유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8. 병충해 방제

(1) 충해의 방제

대추나무에는 큰 피해는 없다. 주로 잎을 해하는 엽권충(葉捲蟲)과 과실을 해하는 심식충(心喰蟲)이 있을 정도이고 목질부에는 부리가 어느 나무보다도 단단하기 때문에 별 피해

가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해충에 대하여는 대추나무의 낙화후 6월 하순경부터 디프테릭스 1,000 배액으로 희석하여 2~3차 뿌리면 완전방제할 수 있다.

(2) 병해방제

대추나무의 일대 위협이 되고 있는 바이러스병은 한때는 전국적으로 대추나무를 전멸의 위기로 몰고간 치명적인 병이다.

이 병은 나무의 가지 또는 나무 전체가 쭈그러지면서 결실이 되지 않고 심하면 나무전체가 죽어버리는 무서운 병으로 해방 이후 전국적으로 만연되고 있으나 아직도 이 병의 병원체인 바이러스(Virus)의 정체나 그 바이러스의 침입경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는 가운데 연구만 거듭되고 있는 실정이다.

바이러스의 질병은 식물체내에 한번 침입하면 생활조직내에서 자유스럽게 이동 번식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대추나무의 일부를 제거하여 번식하는 분얼을 잘라서 영양번식하는 경우에도 그 묘목에 병원균이 옮겨서 발생한다.

따라서 근본적인 방제법은 없고 발생된 나무는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

이하 그 예방법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병이 전혀 없는 나무에서 번식시킨 묘목을 식재할 것.

둘째, 영양 번식묘는 병원균이 옮겨가므로 가급적이면 종자번식에 의한 묘목 식재를 할 것이다.

발생된 나무는 과감히 절단하여 소각시킬 것은 물론이고 종자번식묘라 하더라도 가급적 바이러스병이 발생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묘목을 구득할 것이고 분얼번식은 삼가하고 일부 지방에서는 접목묘종식이 성행하여 지고 있는데 특히 그 접수처의 확인이 절대로 필요할 것이다.

9. 수확과 수익

대추의 수확도 일반과수와 같이 묘목의 번

식법에 따라 그 수확연령에 차이가 있다.

분얼 또는 접목묘에 의한 재배시에는 그 생장이 빠르므로 보통 6년 전후에서 결실을 보게 되는데 반하여 종자번식에 의한 때에는 10년생은 되어야 열매 수확을 할 수 있다.

실생묘라 하더라도 멧대추는 보통 대추에 비하여 2~3년 그 수확을 빨리 할 수 있다.

대추수확은 개화시나 결실기에 공중 습기와 많은 관계가 있다.

즉 개화시 비가 오거나 안개가 자주 끼고 공중습도가 높아지면 그 수정상태가 나빠지는 데 이 때에는 가는 장대로 가지를 흔들어서 잘 된다.

또한 대추가 성숙할 때 안개가 자주 끼면 과피가 상하여 대추의 품질이 저하된다.

대추나무의 재배가치는 우리나라 기후종토에 적응하기 때문에 정원수 뿐 아니라 특히 과실은 제사나 각종 연회때 사용될 뿐 아니라 약용으로 제배되어 왔다.

과실은 8월 중하순에 성숙하는데 열매가 붉게 익었을 때 흔들어서 수확하고 수확한 생과는 말리어 건과로 저장하여야 한다.

즉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쬐이는 곳에 놓고 건조시키며 밤에는 밤이슬을 마치어 두면 속히 건조된다. 그 외에 건조하기 전에 솔에 찌서 말리면 장기간 저장이 된다.

대추나무는 6~7년에서부터 실생묘 식재일 때는 10년생에서부터 수확하는데 처음 수확되면서 4~5년간은 1주당 2~5되 20년생일 때는 평균 1말 이상 수확되고 있다.

경기 광주군 초월면에서는 20년생에서 평균 1말, 경남 함양군지항에서 4년생 접목묘에서 주당 한되를 생산하고 1,000원의 수입을 올렸다 한다.

이와 같은 제산으로 보면 20년생 전후의 나무에서는 주당 10,000원 정도의 수입으로 정보당 적어도 200만~600만원의 수입이 된다는 제산이 된다.

그러나 경기도 광주지방의 수입은 이보다 훨씬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앞으로 바이러스병의 영향에 따라 생산량과 수익면에서 많은 차이가 예상된다. <끝>